부산체육톡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Vol. 50
2024. 06

부산체육人
부산광역시체조협회 최경훈 회장

부산체육 꿈나무
동래중학교 테니스부

부산체육 스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소속
장대높이뛰기 진민섭 선수

체육회 수탁시설 소개
부산실내빙상장

부산광역시체육회
BUSAN SPORTS COUNCIL
47873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TEL 051. 500. 7900 / FAX 051. 505. 6306

Copyright © 2014 Busan Sport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본 메일은 발신전용으로 회신이 되지 않습니다.

부산체육톡톡

CONTENTS

Vol. 50
2024. 06

1 **부산체육人** 화합의 에너지로 피워낸 부산체조의 역동성

부산광역시체조협회 최경훈 회장

2 **부산체육 꿈나무** 스윙! 바다 건너, 세계를 향해

동래중학교 테니스부

3 **부산체육 스타** 하늘을 날아, 나를 넘어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소속
장대높이뛰기 진민섭 선수

4 **체육회 수탁시설 소개**

부산실내빙상장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화합의 에너지로 피워낸 부산체조의 역동성

부산광역시체조협회 최경훈 회장

십 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무려 20여 년 동안 변함없이 부산광역시체조협회와 함께하고 있는 최경훈 회장. 긴 시간 동안 종목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에 미소 짓는 최 회장의 모습에서 부산체조협회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엿볼 수 있었다.

부산광역시체조협회는 최경훈 회장을 중심으로 임직원들 사이가 화목하기로 유명하다. 이렇게 끈끈할 수 있는 이유인즉슨, 최 회장 못지않게 임직원들 역시 10년 이상 소속되어 활동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함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이 협회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화합'이다. 이를 위해서는 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임원분들께서 단순히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재능 기부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조를 하다 보면 부상 위험이 있어 정형외과를 많이 찾으시는데요. 임원 중 직업이 정형외과 의사이신 분이 계십니다. 대회 때마다 앰뷸런스와 구급 장비 등을 대여해주고 계시기도 하고, 혹 부상을 입은 선수나 참가자들 치료도 해주시죠."

이처럼 임원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 부산체조인들과 다양한 만남을 가지게 되고, 자연스레 체조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며, 나아가 부산체조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이 노력을 기울이게 되다 보니, 자연스레 화합으로 뭉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산체조를 향해 진심을 가지고 노력해주시는 분들이 무수히 많다며, 최 회장은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부산광역시체조협회는 내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에서의 활약을 위해 전문체조와 생활체조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최경훈 회장은 끝으로 부산체조인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결국은 '화합'입니다. 지금처럼 양보와 배려의 마음으로 계속 화합해 나가는 부산광역시체조협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힘든 일이 있더라도 더욱 하나가 되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체육 VOL.6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윙!
바다 건너, 세계를 향해

동래중학교 테니스부

격렬한 타구음. 역동적 스윙. 그 속에 감춰진 정신력과 수 싸움의 스포츠 테니스.
여름 더위마저 눌러버릴 열정을 뽐내는 동래중학교 테니스부를 만나보았다.

부산 테니스 역사의 한줄기임을 자부하는 동래중학교 테니스부. 최근 개최된 제53회 전국소년 체육대회 테니스 단식 2위를 차지한 장준서 선수를 비롯한 선수들의 훈련 열기가 뜨겁다. 최근 들어 팀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다고 말하는 테니스부 김문호 지도자,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선수들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음을 자랑했다.

"초등학생 때부터 기량을 뽐내던 장준서 선수가 합류하게 되면서 동기들은 물론이고 선배들까지 자극을 받는 것 같아요. 단체 훈련이 끝난 뒤엔 개인 훈련을 자처하고, 새벽 훈련을 위해 해뜨기 전에 등교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번 전국소년체육대회 단체전 입상에는 실패했지만, 선수들은 좌절하지 않았다. 올해 있을 대회를 준비하는 모습은 사뭇 진지한 동시에 쾌활하다. 그런 선수들에게 김문호 지도자는 첫째도 둘째도 안전을 강조한다.

"테니스는 짧게는 1시간, 길게는 4시간 이상 경기를 치르는 종목이다 보니 체력 소모가 상당합니다. 아직 성장기인 선수들에게 더 중요한 건 다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선수들과 자주 대화 하면서 멘탈을 잡아 주고 있죠."

동래중학교 테니스부는 앞으로 기술적·정신적·신체적 등 모든 측면에서 우수한 선수들을 양성하는 데 힘쓰고자 하며, 또한 스포츠맨십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모든 선수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
욕심 많은 선수들과 선수들의 장래를 고민하는 지도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학교와 교육청. 대회 때면 함께 자리해 응원을 보내는 가족들이 있기에, 동래중학교 테니스부의 2024년 전망은 밝다.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이 그 결실을 맺기를 또 계속해서 테니스를 사랑하기를 기대하고 응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체육 VOL.6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
나를 넘어서다
장대높이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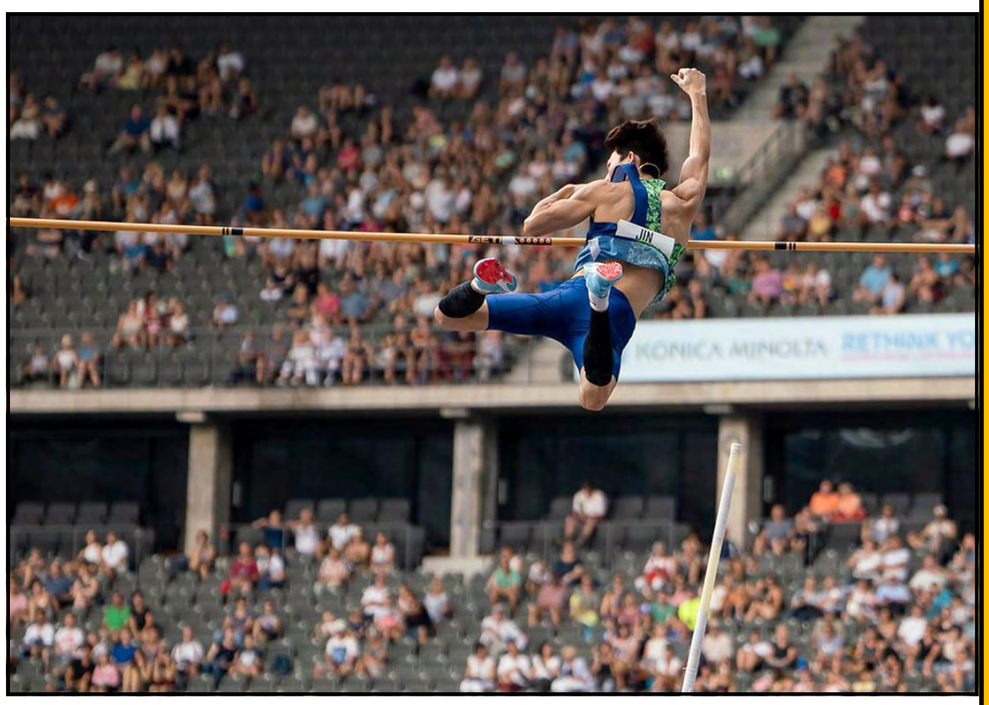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소속 **진민섭 선수**

장대높이뛰기 한국 최고 기록 보유자 진민섭 선수는 명실상부 우리나라 장대높이뛰기 1인자다. 그를 만나 23년간 끊임없이 스스로를 뛰어넘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진민섭 선수는 최근 제52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에서 목표했던 5m 40cm로 우승을 차지하며 자신의 저력을 드러냈다. 그가 가진 최고 기록(5m 80cm)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번 대회 우승은 어느 때보다 간절했고 의미 또한 남달랐다. 2022년 전국체육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훈련하던 중 슬개건 파열, 갈비뼈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입고 1년이 넘는 재활 기간을 보낸 후 2년 만에 출전한 대회에서 얻은 성과이기 때문이다.

"생각하지도 못한 큰 부상을 당하니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대신 재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오전, 오후 정말 열심히 재활 치료에 임했어요."

평소 '멘탈이 강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는 진민섭 선수는 많은 사람의 관심 덕분에 병원에서 예상했던 기간보다 빨리 재활 치료를 끝낼 수 있었다. 대회를 준비하기 시작한 초반에는 '이게 내 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역시 강한 정신력으로 극복했다. 예전 몸은 잊고 지금 몸 상태를 받아들이니 차근차근 기량을 되찾을 수 있었고 다시 정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자신의 기록을 경신하는 게 곧 한국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일인 진민섭 선수. 그는 또다시 한국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싶다는 마지막 목표를 세워두고 우선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누군가는 혹사라 할지 모르지만 제 경험상 결국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안 되는 부분을 악바리 근성으로 하면 결국 이뤄내더라고요. 악바리 근성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 장대높이뛰기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진민섭 선수, 그의 행보를 기대하며 응원한다.

시원한 빙판 위에서 건강과 재미를 모두 잡다

부산실내빙상장

사계절 내내 시원한 얼음을 가르며 스케이팅의 짜릿함을 만끽할 수 있는 부산실내빙상장. 날씨가 더운 여름철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피서지로 많은 이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얼음 위에서 건강과 재미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부산실내빙상장을 소개한다.

부산실내빙상장은 북구문화예술회관과의 복합건립 건의를 거쳐 2005년 7월에 개장하였다. 이후 2020년 9월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인수해 현재의 '부산실내빙상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 중이다. 이곳은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주는 만큼 쾌적한 환경 마련을 하고자 최근 약 두 달 반 동안 누수, 조명, 방수, 단열 등 시설 보수 공사를 실시해 6월 1일부로 재개관하였다.

전문체육인 양성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도 함께 어우러지는 체육 환경을 만들고 있는 부산실내빙상장. 정규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쇼트·피겨), 성인(쇼트·피겨) 반이 있으며, 주 2회 강사분들이 13개의 반이 운영 중이다. 학생들은 주로 방학 기간에 많이 찾기 때문에 주 3회, 2주 완성으로 이루어진 단기 특강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실내빙상장은 전국 최고 수준의 빙질을 자랑한다. 1시간 단위로 빙판을 정비하며, 이용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얼음판으로 되어 있는 빙상장의 특성상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상시 안전요원을 배치해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인근 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어 이용객이 다치거나 환자 발생 시 병원 자체에서 응급팀이 와 병원 이송을 돕는 등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쓰고 있다.

부산실내빙상장은 방문객들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함께 증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직원들 간의 소통을 외부적으로는 이용객 및 지역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여 화합을 이루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체육 VOL.6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자세히보기

부산광역시체육회와 함께하는

부산체육사랑카드

부산시체육회 지정 체육시설 10%, 월 최대 1만5천원 할인!
스포츠, 의료, 학원 등 생활 곳곳에서 할인 챙기세요!

연회비 국내전용(BC) 1만원(기본 연회비 없음, 제휴 연회비 1만원)

필수 안내사항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등 낮음)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율 :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3%p, 법정최고금리(20%) 이내
(단,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 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 합니다.)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 그 외의 경우 :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 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 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또는 부산은행 고객센터 (1588-6200)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 BNK 부산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3-1493 (심의일자 2023.08.17) 유효기간 2023.08.21 ~ 2024.07.31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3-C2b-09563호(2023.08.22 ~ 2024.08.21)

부산체육톡톡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Vol. 50

2024. 06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47873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TEL. 051. 500. 7900 / FAX. 051. 505. 6306

Copyright © 2014 Busan Sport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본 메일은 발신전용으로 회신이 되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BUSAN SPORTS COUNCIL